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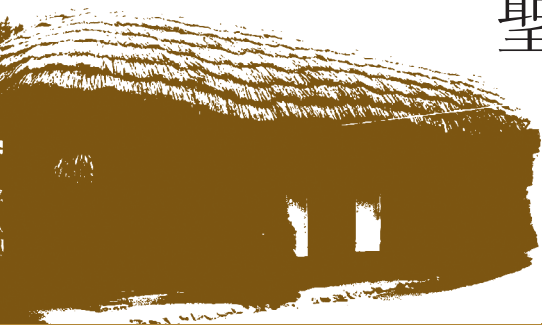
ARTICLE

# 03

## 동중국해권 민가의 聖域에 관한 연구

윤일이<sup>a</sup> · 尾道建二<sup>b</sup>

<sup>a</sup>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 <sup>b</sup>일본 구주공립대학 건축공학과



63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4

동중국해와 남방적 요소

1. 수평적 신화
2. 이중적 생계구조
3. 여성중심의 가족구조

66

동중국해 住文化圈

1. 제주도 민가
2. 규슈(九州) 민가
3. 류큐(琉球) 민가
4. 타이완(台灣) 민가

70

동중국해권 민가와 聖域

1. 家神과 聖域
2. 聖域의 변용
3. 수평적 공간구성의 변화

77

결론

78

참고문헌

# 동중국해권 민가의 聖域에 관한 연구

윤일이<sup>a</sup> · 尾道建二<sup>b</sup>

<sup>a</sup>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 <sup>b</sup>일본 구주공립대학 건축공학과  
투고일자 : 2010. 04. 02 | 심사일자 : 2010. 04. 16 | 게재확정일자 : 2010. 06. 04

## 국문초록

우리나라 제주도에는 바다를 통해 전달된 수평적 신화가 널리 분포하고, 가족 내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고, 민가 역시 한반도 민가와 건물배치, 난방 · 취사 분리, 거주유형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 민가형성에 북방문화 외에 다른 문화의 전래도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남해안과 제주도 이남에 펼쳐진 동중국해(혹은 동지나해)에 접한 민가를 비교하였다. 쿠로시오가 흐르고 계절풍이 부는 동중국해 지역에는 대륙의 북방문화뿐만 아니라 단속적이지만 바다를 통한 남방문화가 복합화되어 이곳 주문화권만의 특색을 이루었다. 가신들이 좌정하는 성역을 통해 동중국해 민가에 나타나는 남방문화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첫째, 동중국해 지역에는 해양과 관련된 수평적 신화가 주류를 이루고,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반농반어 · 반농반채 등 이중적 생계수단을 지닌다. 가족구성은 전체적으로 모계 · 쌍계사회의 특성이 강한 연령계제제의 남방계 특성이 잔존하면서도, 외부적으로 대륙북방계에 원류를 두고 있는 가부장권의 특성이 상류계층과 도시에 나타나는 이중체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주택구조는 종적위계 · 남녀구별의 수직적 공간구성 대신에 세대별 · 기능별에 따른 수평적 공간구성을 이룬다.

둘째, 동중국해 지역은 정령신앙 · 조상숭배를 기반으로 한 토속신앙으로 가신들은 여성 · 농경 · 불교 관련성이 깊다. 부엌에서는 화신(조왕), 곡창에서는 곡령신, 축간에서는 축신을 섬겼는데, 이들은 대부분 여신이고 사제도 주부들이 담당하였다. 이후 한 · 중 · 일 본토에서 불교 · 유교가 들어오면서 기존 여성중심의 무속의례에 남성 중심의 불교 · 유교의례가 공존하는 이중적 성역을 이룬다.

셋째, 동중국해 지역에서 조왕, 조령신, 축신들을 모시는 곳을 통해 별동형 부엌, 곡창, 돼지뒹간 등이 별동으로 존재했다가 점차 주택내로 흡수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건축기술의 발달과 생활양식 변화에 연유하였다. 또 곡창 · 돼지뒹간의 고상식은 중국남부 경로와 별동형 부엌과 화신의 성격은 남양 경로와 관련이 있는 등 해양문화의 혼합성이 나타난다. 그러나 별동형 부엌 · 곡창 · 돼지뒹간에 석재의 사용은 동중국해권 주문화권만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200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입니다. 과제번호 : KRF-2006-531-D00042

주제어 | 동중국해, 남방문화, 민가, 제주도, 규슈, 류큐, 타이완, 가신, 성역

##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우리나라 濟州道에는 바다를 통해 전달된 수평적 신화가 널리 분포하고, 가족 내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고, 民家 역시 韓半島 民家와 건물배치, 난방·취사 분리, 거주유형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 민가형성에 北方文化 외에 다른 문화의 전래도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남해안과 제주도 以南에 펼쳐진 동중국해(혹은 동지나해)에 접한, 일본 서남 규슈(九州)와 오키나와(沖縄) 열도, 중국의 화남지방과 타이완(台灣) 등의 민가를 비교하여 南方 및 海洋으로부터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전에 바닷길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를 묶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육지문화권과는 다른 해양문화권으로 독자적인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표는 첫째, 동중국해권 민가에서 家神이 좌정하는 聖域을 비교하였다. 가정신앙은 전통생활과 밀착된 민간신앙의 한 범주로서 기층문화의 핵심이고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동중국해 민가내 聖域의 공통점을 통해 제주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통민가에 잔존하는 남방문화(해양문화)<sup>01</sup>의 특성을 살펴본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한·중·일에 둘러싸인 동중국해<sup>02</sup> 지역은 끊임없이 쿠로시오 해류(黑潮)가 흐르고 季節風이 부는

곳으로 오래전부터 바다를 통한 문물교류가 이루어졌던 곳이다. 고려 중기까지 이곳은 활발한 상업·교역의 무대로 문화를 발전시켜 왔지만, 이후 무역의 쇠퇴로 변방으로 머물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동중국해에 접한 많은 지역들의 건축은 각 나라의 주류건축에서 벗어나 연구의 관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바다를 중심으로 이들 지역의 건축을 살펴본다면 해양문화권에 내재한 공통점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범위는 동중국해에 접한 많은 지역들 중에서 남방문화의 특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제주도, 규슈 서남부, 류큐, 타이완 동부로 한정하였다(이하 동중국해권 민가). 이는 제주도는 12세기 고려에 복속되기까지 독립국가인 耽羅를 유지하였고, 오키나와도 독립된 琉球왕국을 유지하다가 19세기 일본에 복속되었고, 타이완은 17세기 漢族이 대거 이주해오기 전까지 독립된 문화를 유지하는 등, 한·



【그림 1】 동중국해의 주문화권

01 장보웅, 1986,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재, p.206: 南方文化란 동남아시아, 중국 화남지방, 일본,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등의 지역에서 형성된 문화가 해양경로를 통해 한반도에 상륙한 문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체로 선사시대에 제주도, 한반도의 남해안, 서해안 및 다도해에 거주하였던 선주민의 문화를 가정한 것이다.

02 고유봉, 2003, 「해양학적 관점에서 본 하멜 표류」, 『항해와 표류의 역사』, 국립제주박물관, p.301: 東中國海의 확실한 경계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제주도 서쪽에서 양쯔강을 잇는 선과 제주도 동쪽에서 일본 나가사키현 고토(五島)열도를 잇는 선을 북쪽 경계로 하고 남쪽은 타이완 북부까지의 해역을 말하는데, 남중국해와는 타이완 해협에서, 북태평양과는 류큐열도를 경계로 하는 태평양으로부터 분리된 부속해라고 할 수 있다.



중·일 주류문화권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여 동중국해권의 개별적인 문화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방법은 지리학·민속학·인류학·건축학 등 기존연구<sup>03</sup>를 참고하였고 대상지역의 민가를 답사하고, 민가 내에서 家神이 좌정하는 공간(聖域)을 중심으로 동중국해 주문화권의 공통점을 살펴보았다.

## 동중국해와 남방적 요소

### 1. 수평적 신화

동중국해 지역은 바다로 둘러싸이고 매년 태풍이 지나가는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많은 신을 의지하는 신앙이 자리 잡았다. 신라와 가야, 제주도를 비롯한 동중국해 지역에는 地中湧出神話, 海上渡來神話, 卵生神話 등 남방계 신화가 분포하고, 女神들이 등장하는 사례가 많다. 제주도 삼성신화는 세공주가 벽랑국에서 목함을 타고 표류해 왔고, 송당의 금백조 여신, 내왓당의 천자또마누라, 한수리의 영등당과 우도의 영등할망당 등은 바다에서 도래한 신들이고, 칠성본풀이, 토산당본풀이, 차귀당본풀이 등에 등장하는 뱀은 바다 건너 남방에서 왔다<sup>04</sup>. 일본의 어민들이 섬기는 에비스(惠比寿神), 류큐에서 섬기는 火神도 바다 건너에서 온 여신들이라고 한다. 특히 제주도 여신들은 직능면에서 천지개벽과 마을의 성립·분리·확산에 참가하고, 산육, 운명, 치병, 농경과 풍요, 수복도 관장하며, 집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실제 여성들의 생활처럼, 여신들은 남신들

보다 훨씬 다양하고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동중국해 지역에서 고대국가의 司祭들 역시 대부분 여성들이었다.『三國遺事』『三國史記』에 보면, 신라시대에는 閼英계통의 여성이 始祖廟를 비롯한 국가제사의 사제였다. 1대 혁거세왕대부터 19대 눌지왕대까지 阿老계통의 王妃·王妹가 국가제를 주관했다. 이후 시조묘가 중국식의 神宮으로 바뀌고 점차 유교적인 가부장권이 강화되면서, 국가제사의 제사장도 남성중심이 된다. 일본에서도 고대에는 巫女가 모든 제사를 주관하였다.『三國志』『魏志東夷傳』倭人條에는 ‘왜인 수장들은 원래 男王을 세웠으나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고 대란이 일어나, 鬼道 즉 주술에 능한 무녀와 같은 성격을 가진 히미코(卑彌呼)가 야마타이국(邪馬台國)의 여왕으로 즉위함으로써 대란이 진정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외래종교의 전래와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무녀중심의 무속은 일본 본토에서 점차 사라지고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오키나와 제도(류큐)에서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작은 동산이나 영험한 숲에 설치된 우타키(御嶽)<sup>05</sup>에는 가미츄(女神)라 부르는 ‘노로’와 ‘츠카시’ 등의 신녀들만 출입할 수 있었다. 國王母가 실제 권력을 행사하고, 무속신앙의 지도자가 神女로서 여자라는 점, 피난처에 여자가 도망가면 남편이 더 이상 추급할 수 없을뿐 아니라 遠島로 귀양가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여자를 두려워한다는 점 등 여자의 활동이 활발하고 女權이 크다는 점이 강조되었다<sup>06</sup>. 타이완의 高山族은 전문적인 성직자가 없고, 다만 무속적인 방법을 장악한 여무당이 있으며 이들이 흔히 쓰는 수단은 주술이었다.

<sup>03</sup> 한국전통건축 형성에 남방문화와의 관련성을 언급한 선행연구로는 장보웅의 『한국의 민가연구』 (1986), 김광언의 『한국의 주거민속지』 (1988), 조성기의 『한국남부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1985), 정영철의 「제주도 전통민가의 형성과 특성에 관한 연구」 (1991), 윤일이의 「남방문화 전래에 따른 동중국해권 민가의 비교연구」 (2010) 등이 있다.

<sup>04</sup> 현용준, 1986, 『제주도무속연구』, 집문당, pp.27~28

<sup>05</sup> 국립제주박물관, 2007, 『탐라와 유구왕국』, p.42: 우타키(御嶽)는 주로 오키나와 남서제도에 분포하며, 18세기에는 약 900여 곳이 있었다고 한다.

<sup>06</sup> 정영철, 1991.6, 「제주도 전통민가의 형성과 특성에 관한 연구-남방적 요소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pp.113~123: 신라와 류큐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성이다.

## 2. 이중적 생계구조

동중국해 지역에서는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半農半漁, 半農半採의 이중적 생활체계를 유지하였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산과 바다로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어서 가정내에서 농사를 짓는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이처럼 노동의 성별구분이 확실한 것은 미크로네시아 여러 섬의 주민생활과 공통된 내용이다.

제주도는 화산회토(뜨판)에 바람 많은 섬으로 다우지에 속하지만 가뭄이 연례행사처럼 찾아와, 산촌은 반농반목, 해촌은 반농반어를 유지하였다. 남자는 주로 어로에 종사하고 여자는 밭일과 연안에서 잠수하는 일을 하였다. 그리고 목축과 어업이 마을 단위의 공동목장과 공동어장에서 행해져서 일차적으로 혈연적 유대보다는 마을 구성원간의 유대를 중시하였다<sup>07</sup>.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공동체적 마을당신앙의 성행, 장자 중심이 아닌 균분상속제, 제사 분할상속, 부부중심의 가족제도, 노인생산력의 지속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밭농사를 했던 협업노동체계, 능력에 따르는 해녀들의 작업, 계 등으로 한반도와는 상당한 차이를 가졌다.

오키나와 본도 북쪽인 구니가미(國頭) 지방의 주민은 田畠을 열어 벼·밤·고구마를 심고, 촌락 전면에 있는 열은 산호초 바다에서 물고기나 해초를 잡았으며, 뒤쪽의 깊은 산림에서 수렵이나 과일 채취를 하는 등 농경·어로·수렵·채취 등이 조합된 복합적 생활 활동을 하였다.

타이완 高山族은 주로 화전농업을 하고 부분적으로 수렵을 하였다. 동부해안 아미족(阿美族)도 화전농업을 주로 하는데, 연령계급이 통상 청년조, 장년조, 노년조 등 9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청년조

가 부락의 노동작업인 수렵·어로·항해 등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란위도(蘭嶼島)의 야미족(雅美族)은 남자는 고기를 잡고 여자는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노인은 생선을 말리거나 선박공사에 참여하는 등 사회가 분업화되었다.

## 3. 여성중심의 가족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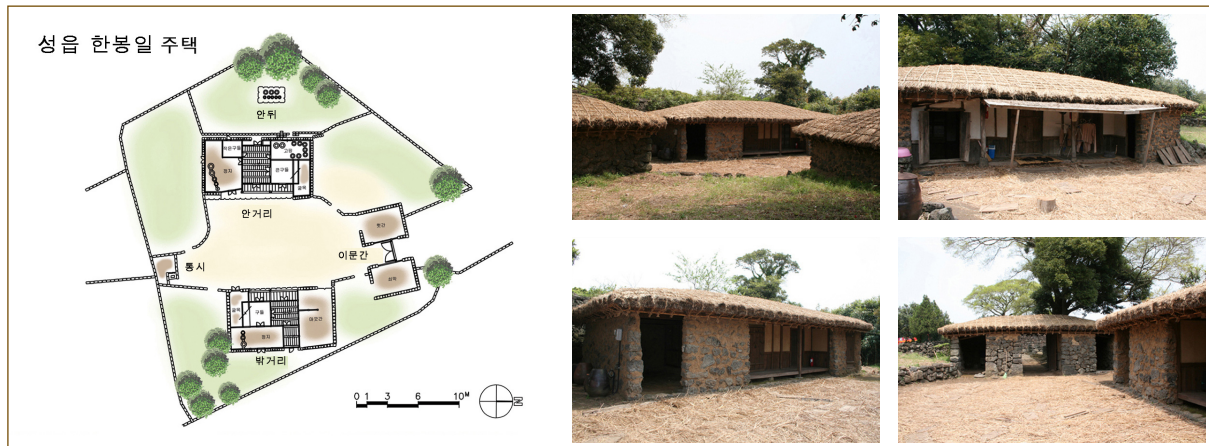
동중국해 지역의 가족구조는 父系制와 더불어 母系制·雙系制가 공존하고 있다. 타이완에는 모계·쌍계·부계사회가 공존하고, 류큐지역은 쌍계사회에 17세기 이후 나하(那覇)·슈리(首里)를 중심으로 부계제가 수용되었다. 규슈지역은 이에(家)의 관념이 비교적 약하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는 지역도 있어서 同族村落보다는 年齡階梯制村落(비동족촌락)이 많다. 제주도는 외부적으로는 부계사회이지만 내부적으로 여성중심의 가족구성을 이루고 있다. 사회인류학의 연구에 따르면, 동족촌락의 기본이 되는 가부장권적 지배문화는 대륙북방계에 원류를 두고 있으며 연령계제제의 뿌리는 남방계(오스트로네시아 종족)에 있다고 한다<sup>08</sup>.

동중국해 지역에서 母系社會에는 타이완의 아미족·피난족·평포족이 속한다. 재산과 가계의 계승이 모녀상속으로 이루어졌고, 여가장은 가족사무 특히 가족재산에 대해 매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래서 아미족의 남자는 혼인 후 여자집에 들어와 대부분 살고, 이들의 지위는 가족 가운데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雙系社會에는 타이완의 타이야족·아미족, 류큐지역이 이에 속한다. 타이야족은 혈연을 기초로 한 친족조직은 느슨한 대신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각종 단체가 활성화 되었다. 그리고 지역단체는 부락의

<sup>07</sup> 제주도 해녀사회는 농경사회처럼 촌수, 항렬이나 나이 또는 신분 등의 귀속적 지위가 아니라 해산물 채취능력에 따라 상군·중군·하군으로 나누어져 의사 결정이나 '불턱'(잠시 몸을 덮히는 모닥불 자리)의 자리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성취적 지위를 존중하였다.

<sup>08</sup> 김미영, 2002, 『일본의 집과 마을의 민속학』, 민속원, pp.13~25



【그림 2】 제주 한봉일 주택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한명의 두목과 2~3명의 부두목에 의해 통솔된다. 야미족 사회는 씨족조직이나 계급조직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사회조직은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어단조직이다. 오키나와 친족제도는 양면적인 친척(bilateral kindred)과 부계의 출계집단이 공존하고 있다. 양면적인 친척은 일정한 관계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친족에 대해서는 어머니쪽과 아버지쪽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조상제사를 제외한 농사활동, 통과례, 가옥신축 등을 포함하여 협동작업을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父系社會에는 제주도, 규슈 그리고 타이완의 싸이시아족·뿌농족·사오족이 속하지만 그 속사정은 조금 다르다. 제주도에서 친족관계는 유교적 부계중심으로, 남자가 친족사회의 중추로서 제사를 지내는 제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실제 생활면에서는 母중심의 핵가족을 이루어, 가정내 경제권과 책임은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규슈지방과 태평양 해안에는 연령계제체존락이 많은데, 이는 동족존락과 달리 家格이 아니라 개인연령을 중심으로 마을생활을 영위하는 횡적결합의 수평적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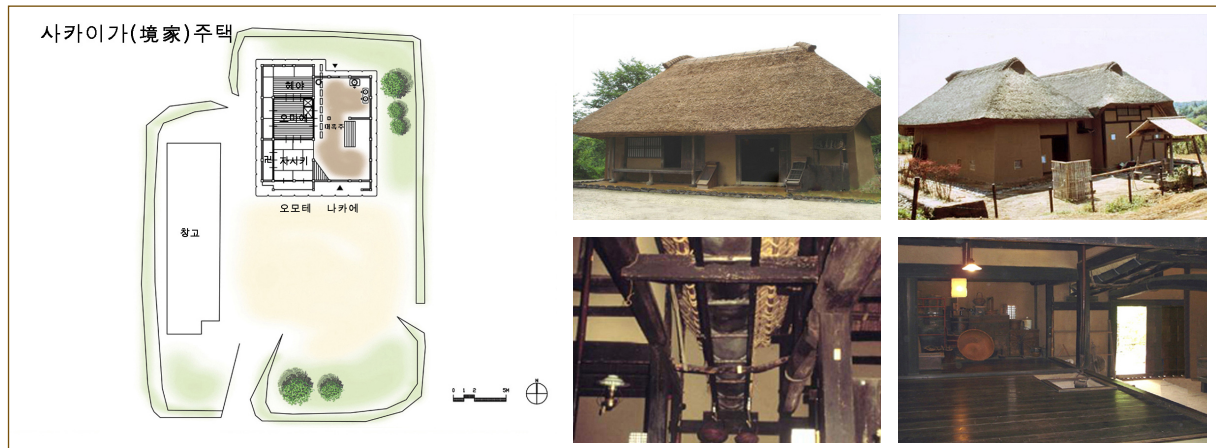
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家) 관념이 미약한 탓에 집을 영속적으로 계승시키려는 관념도 별로 없어서, 아들은 혼인과 동시에 부모와 별거를 하는 隱居分家制<sup>09</sup>를 흔히 볼 수 있다. 타이완의 세 부족은 부락 내에 완전한 부계씨족 조직계통이 존재하고 있다. 부락의 정치·경제·종교활동의 기초로 부락의 공공사무는 모두 씨족 족장회의에 의해 결정된다.

## 동중국해 佳文化圈

### 1. 제주도 민가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 민가는 굴렁진 부지에 돌담과 방풍림을 두르고 움크린 모양의 새지붕과 현무암 외벽을 쌓았고, 안거리·밖거리·모커리가 두거리·세거리·네거리 집을 구성하였다. 세대별로 구분된 안거리와 밖거리에는 각각 상방, 구들, 정지, 고팡이 자리하는데, 안거리의 상방에 문전신, 정지에 조왕, 고팡에 안칠성, 그리고 안뒤에 밧칠성, 돛통시에 측신을 모셨다. 그리고 안거리에 사는 사람이 조

<sup>09</sup> 김미영, 앞책, pp.13~25: 부모가 가장권을 물려주면서 자식과 별거생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은거를 실행한 부모와 아들가족이 別居·別財·別食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은거분가로 간주한다.



【그림 3】 규슈 사카이가(境家) 주택

상제사와 마을에서 친족의 일, 마을 부조, 마을 부역, 마을 공동재산권, 당에 가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sup>10</sup>.

19세기 초에 건립된 성읍의 한봉일 가옥(그림2)은 이문간을 들어서면 안거리와 밖거리가 마주 앉은 세거리집이다. 도로면 보다는 조금 나지막하게 마당이 자리하고 집 주위에는 넓게 울담을 두르고 담안에는 우영(텃밭)을 일구었고 안마당 깊숙한 곳에 측신을 모시는 통시가 있었으나 지금은 허물어져 버렸다. 안거리는 상방과 큰구들은 난간을 통해서 들어가고, 큰구들 뒤쪽에 안칠성을 모시는 고팡이 위치한다. 취사, 식사, 작업, 저장 등이 이루어지는 정지는 흙바닥이고, 벽은 현무암을 쌓았고, 천정은 가구구조가 노출되어 있다. 대개 외벽측에 현무암 3개를 세운 '술덕(술받침대)'을 조왕으로 섬겼고, 여기에 4~5개 술을 크기 순서대로 걸어 놓고 사계절 취사에 이용하였다.

## 2. 규슈(九州) 민가

일본 민가는 동·서로 많은 차이를 가지는데, 규슈에서도 서남부에는 쿠로시오가 흐르고 바람이 강하고, 주택법에 따라 집을 크게 지을 수 없어서 이 지역

만의 독특한 민가형을 형성하였다. 주거공간인 '오모테(おもて)'와 취사공간인 '나카에(なかえ)'가 분리된 二자형(二棟造)과 더불어 ㄷ자형(竈造), ㄱ자형(漏斗造)으로 변화된 주택형이 등장한다<sup>11</sup>. 몸체인 오모테와 나카에뿐만 아니라 부속체인 곡물을 저장하는 구라(藏)나 바깥변소 등에도 가신(屋内神)을 모셨다. 이후 일본본토의 영향으로 表裏개념이 수용되어 손님을 위한 전열과 가족을 위한 후열로 구분되었다.

1830년에 건립된 사카이가(境家, 그림3) 주택은 원래는 熊本縣 玉名郡 玉東町 原倉에 위치했지만 지금은 菊水町民家村에 옮겨졌다. 이 주택은 정면에서 보면 一자형(直屋) 같아 보이지만 배면에서는 2개동이 길게 돌출된 ㄷ자형이다. 구조적으로는 二자형에서 ㄷ자형으로 발전과정에 있는 집이다. 보칸 2칸의 土間棟과 보칸 2칸 반의 居室棟이 접해있고, 접합부 상부에 기와흙통(中樋) 8매가 설치되어 빗물을 흘려보낸다. 우측의 토간동은 기둥의 외측에 독립된 흙벽이 설치되어 비바람을 막고, 중간에는 大黒柱가 세워져 있고, 아궁이쪽 기둥에 火神을 모셨다. 좌측의 거실동은 표측으로부터 자시키(座敷)·오마에·해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시키에는 다다미를 깔고 佛壇

10 국립제주박물관, 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p.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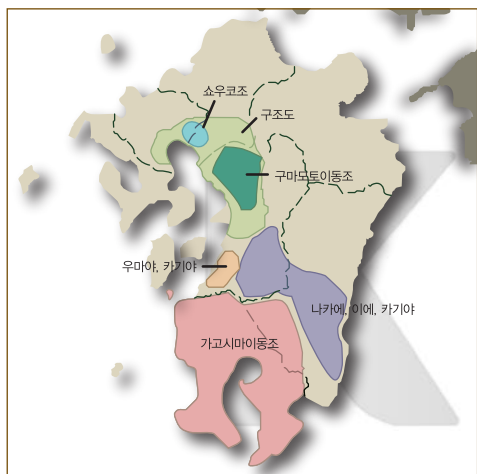
11 小野重郎, 1982, 『九州の民家』, 慶友社, p.163: 일본 규슈지역에서 ㄷ자형(竈造)의 발생이유는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부재를 절약할 수 있고, 幕府시대 보길이를 제한한 가사규제 때문이라고 한다.



【 표 1 】 규슈민가의 유형

유형	형태
이동조(二棟造, 分棟型, 別棟型)	
쇼우코조(漏斗造)	
구조조(竈造)	
곡옥(曲家, 鍵屋, 鉤屋, 角屋)	
직옥(直家, 直屋)	

(출처: 『九州の民家』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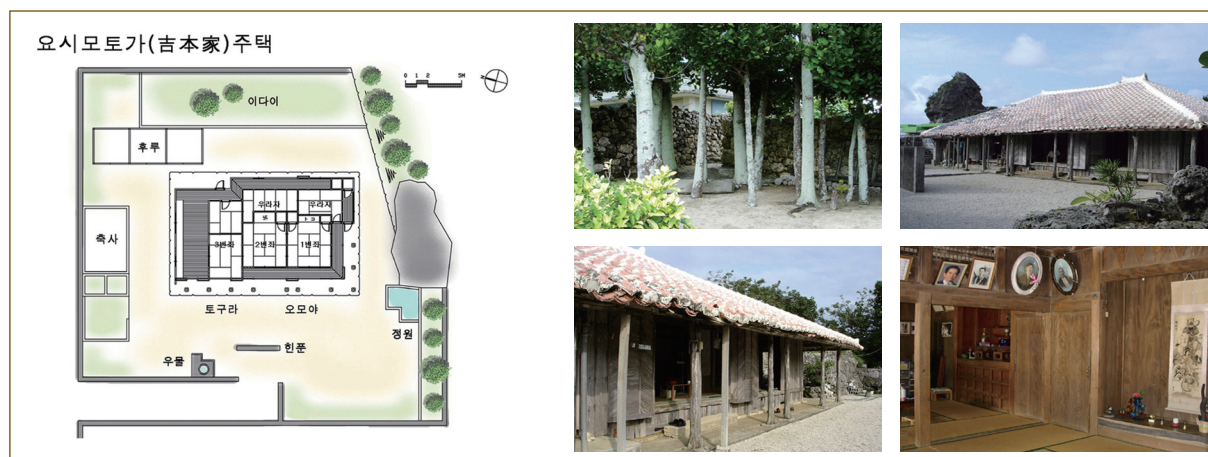
【 그림 4 】 규슈민가의 분포도 (출처: 『九州の民家』 1982)

을 설치하였고, 오마에는 가족단란의 장소로 마룻바닥에는 이로리(爐)를 두었다.

### 3. 류큐(琉球) 민가

류큐에도 바람이 많이 불어 지대가 낮은 부지에 석회암의 담과 방풍림을 두른 작은 규모의 주택을 지었다. 류큐 민가는 중앙의 ‘우후야’(母屋)와 서쪽의 ‘토구라’(炊事屋)로 분리된 것이 원형이었으나, 점차 한 동으로 연결되어간다. 우후야의 평면구성은 동측을 상위로 해서 右表부터 접객실인 1番座는 가족의 수호신을 모시는 神堂이 있고 冠婚喪祭의 공간이다. 가족실인 2番座는 佛壇이 있고 주인부부의 침실로 사용되며, 3番座는 작은방으로 토구라와 인접하여 식사장소로 사용되고 식구가 많은 경우는 옷장 같은 가구의 수납장소가 된다. 이처럼 앞쪽에는 公的 개념의 오모테(表座)를 두고 뒤쪽에는 私的 개념의 우라자(裏座)라는 수장공간을 둔다<sup>12</sup>. 토구라는 대부분 흙바닥으로, 이곳에 솥을 놓고 작업장과 취사장으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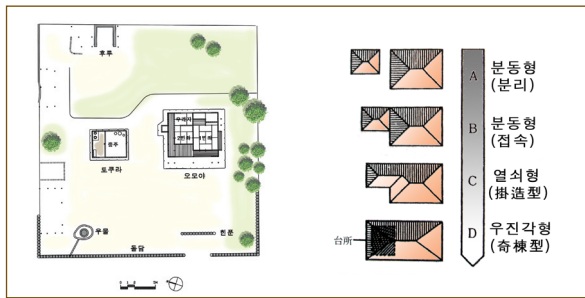
오키나와현 浜比嘉島 勝連町에 위치한 요시모토가(吉本家, 그림5)의 주옥은 메이지(明治) 말경에 지



【 그림 5 】 류큐 요시모토가(吉本家) 주택

12 日本民俗建築學會, 2001, 『民俗建築大事典』, 柏書房, pp.322~325





【그림 6】 류큐 분동형 민가와 변천  
(출처: 『南西諸島の民家』 1961 및 『民俗建築大事典』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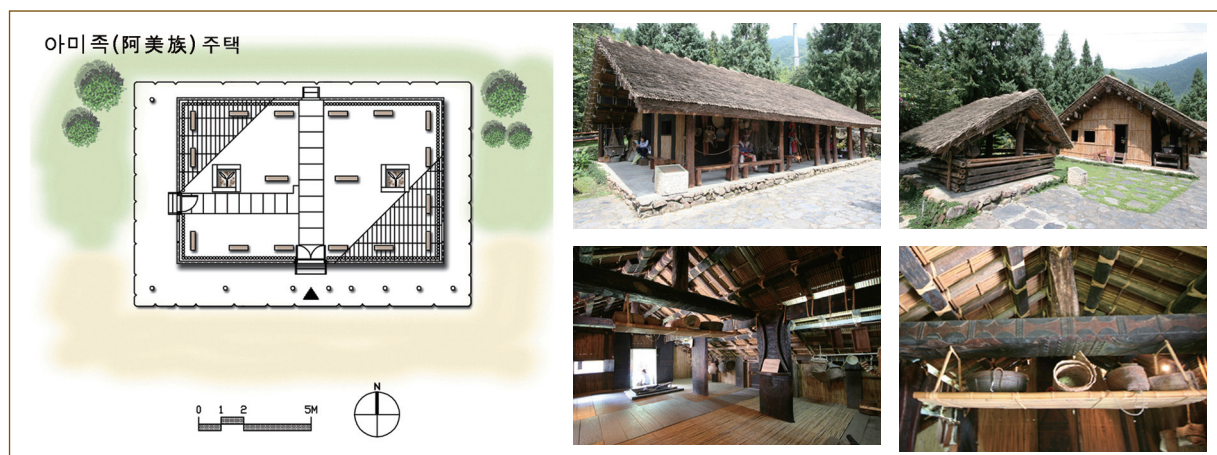
은 단층집(平屋)이다. 주택은 석회암으로 쌓은 돌담이 둘러져 있고, 입구에는 ‘힌푼’(차면담)이 세워져 있다. 주옥은 부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북서측에는 ‘후루’(돼지뒷간), 남측에는 자연석을 이용한 石庭이 있다. 주옥 뒤쪽에는 ‘아다이’(주택내 야채밭)가 있다.

주옥은 부엌과 우라자(裏座)를 증축한 열쇠형(掛造型)이다. 오모테(表座)의 1番座에는 도코노마, 2番座에는 불단이 있고, 그 사이에 中柱가 세워져 있어 집의 중심을 상징한다. 부엌에는 화신, 후루에는 후루신, 우라자에는 난도가미를 모셨는데 이들은 서쪽과 후열에 위치한 반면, 신당과 불단은 동쪽과 전열에 위치한다. 또 신앙상의 문-힌푼-불단이 중축선상에 놓여 있다.

#### 4. 타이완(台灣) 민가

타이완의 원주민은 漢族化한 ‘平埔族’과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高山族’으로 대분된다. 고산 9개족은 부족별로 반수혈, 지상옥, 고상옥, 석판옥 등 다양한 주거형을 유지하고 있다. 고산족 중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아미족(阿美族)은 동부 화리엔(花蓮)에서 타이둥(台東)까지 남북으로 좁고 길게 해안평지에 분포한다. 화전농경을 주로 하며 사회조직은 장로회의, 두목지도, 연령계급 및 대가족의 모계사회로, 모계상속·데릴사위제도·여성가장제가 두드러진다. 건축은 주택(주옥, 주방, 공작실, 곡창, 축사, 해골집)과 집회소가 있다<sup>13</sup>.

이 집은 타이중(台中) 九族文化村에 세워져 있는 單室正入式的 북부아미족 주택이다(그림7). 주옥은 장방형으로 바닥이 50~60cm 높여진 고상식이고, 지붕은 50cm 두께의 맞배초가이다. 벽은 판벽과 띠벽으로 구성되었고, 기둥은 판상형 목재이다. 특히 조상을 상징하는 중심기둥에는 기하학적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내부는 대나무바닥의 통간이지만, 동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여성공간, 서쪽은 남성공간으로 분리되고, 취침할 때에는 방 중앙에서 잔다. 아미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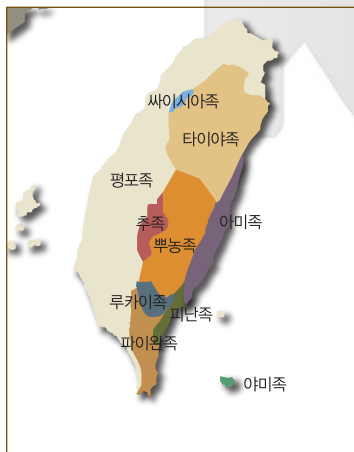
【그림 7】 타이완 아미족(阿美族) 주택

13 藤島亥治郎, 2000, 『台灣原味建築』, 李易蓉 譯, 原民文化, p.79

대부분 대가족으로 큰 주택을 지어 실내의 좌우양측에 화로를 설치하고 그곳에 화신을 모셨고, 별도의 칸막이벽을 세워 젊은 부부의 침실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별동형 부엌과 축사를 따로 건축하였다.

【 표 2 】 타이완 고산족의 구성

고산족	인구수	가족제도	해발 높이	주거 형식	건축 재료
싸이시아족	4,602	부계	1,000m이하	평지식	竹
타이아족	84,849	쌍계	1,000m이상	수혈식	木, 石
아미족	130,268	모계	해안평지	고상식	竹, 木
뿌농족	39,656	부계	3,000m이상	수혈식	石
피난족	9,654	모계	—	평지식	竹, 木
루카이족	10,212	계급	평균1,500m	수혈식	石
파이완족	63,627	계급	평균1,500m	평지식	石
아미족	4,945	쌍계	해변가구릉	반수혈식	木, 石
사오족	6,240	부계	—	평지식	竹, 木



【 그림 8 】 타이완 고산족의 분포도

## 동중국해권 민가와 聖域

### 1. 家神과 聖域

동중국해 지역은 화산섬으로 토지가 척박해 생산성이 낮고 어로행위의 위험도 컸고,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여 신의 가호를 구하고자 하여 집안 곳곳에 家神을 모셨다. 그 중에서 부엌의 火神, 곡창의 穀靈神, 측간의 廁神은 여성신으로 인식했고 司祭도 주부였다. 이를 중심으로 불·농경·여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 (1) 火神(조왕)과 부엌

동중국해 지역에서 불은 취사·난방·조명의 기능적 역할 외에 신적인 존재로 숭배되었다. 이곳의 火神은 3개의 돌을 신체로 삼으며, 바다를 건너온 수평신이자 여신으로 인식되었고, 의례의 집례도 대부분 주부가 담당하였다<sup>14</sup>. 특히 제주도, 규슈, 류큐, 타이완 등에는 남양 건축의 특색인 별동형 부엌이 분포하는 공통점을 가진다<sup>15</sup>. 이곳의 화신 성격은 쿠로시오를 통해 남양에서 전파되었고, 이후 천상을 오르내리는 조왕의 성격이 중국남부 경로를 통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타이완의 동부해안가에 거주하는 아미족은 별동형 부엌을 구성하였다. 부엌결구는 주옥의 방식과 동일하며, 옥내에 화로 및 선반, 농기구를 설치하였다. 화로에는 대소차가 없는 4~5척의 큰 돌 3개를 세우는데, 이는 火神의 신체로 삼는 남방계의 특성이다.

류큐의 별동형 부엌인 ‘토구라’에는 원시적인 아궁이를 상징하는 3개의 돌을 바다에서 주어다 부뚜막 벽쪽에 세모꼴로 놓고 소금 한 주먹을 놓는다. 류큐에서 火神은 제1신으로 바다 건너 樂土에서 온 수평신으로, 三體의 속에는 聞得大君 유래기, 태양신(여

<sup>14</sup> 下野敏見, 1999, 『民俗學から原日本見る』, 吉川弘文館, p.228: 류큐의 火神은 3개의 돌이나 가마형을 볼 수 있을 정도로 具象的이지만, 아마토(일본 본토)의 화신은 추상적이다. 그리고 火神의 사제는 일본 전국적으로 주부이다. 류큐에서는 주택의 화신은 주부가, 마을의 화신은 노로가 사제이다. 아마토에서는 주택의 화신은 주부가, 마을의 화신은 남성의 神職이 관리한다.

<sup>15</sup> 김광언, 1988,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p.468: 별동형 부엌은 동남아시아 및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등 열대지방과 타이완 일부와 류큐, 규슈 남부 그리고 제주도까지 분포한다.

성신), 조상신이라는 의미가 있다. 명절의례나 家宅祭를 지낼 때 제일 먼저 火神에게 제례를 올리고, 매월 1일과 15일에 주부가 제사를 지낸다.

규슈 남부의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에는 별동형 부엌인 ‘나카에’가 분포하는데, 대개는 아궁이 근처에 시령을 마련하고 그 위에 부적이나 幣束을 안치한 형태이다<sup>16</sup>. 규슈를 포함한 서일본에서는 火神과 農神의 신격을 동시에 가진 코진사마(荒神)를 섬겼다. 火神은 불이나 鎮火를 관장할뿐만 아니라 농작, 가축, 牛馬의 수호신, 부와 생명을 관장하는 다양한 신격을 갖는다.

제주도 동남부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집에서는 안거리와 떨어진 곳에 ‘정지거리’를 따로 지었다. 현무암벽에 띠지붕을 얹고 흙바닥에 돌 3~4개를 솔밭처럼 모아 놓은 화덕을 4~5개 나란히 두었다. 이 화덕에 좌정하는 조왕(火神)은 할머니신으로 마을공동체의 평화와 집안의 부를 관장하는 것으로 여겼다. 대개 음력 정월이나 이월에 마을제가 끝난 다음에 날을 받아서, 문전제를 지내고 나서 조왕제를 지냈다.



【사진 1】 동중국해권 화덕

이러한 정지거리는 점차 없어지고 있으며 안거리 안에 정지가 위치한다. 그리고 고상의 상방에 난방·조명 및 간단한 조리를 위해 봉덕(혹은 부섭)으로 불리는 불박이 화로를 종종 설치하였다.

## (2) 穀靈神과 곡창

곡물재배를 생업으로 하는 많은 민족에게 곡령신앙은 폭넓게 분포하는데, 전형적인 것은 벼농사지대에서 볼 수 있고 곡신은 어디서나 여신으로 취급된다. 보통 벼의 산실을 지어 벼의 혼이 재생하기를 기원하는 제사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sup>17</sup>. 동중국해권의 곡창 형태는 일반적으로 곡물건조를 위해 고상식으로 지어졌고, 일부 비바람막이와 동물들의 접근을 막는 쥐방지판(동남아 전통)이 첨가되었다. 옛날에는 마을 공용의 곡창을 촌락과 분리된 경작지 가까이 세웠으나, 이후 생산성과 경제성이 향상되면서 개인주택 내에 건축하였다.

타이완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뿌농족·사오족·파이완족은 옥내에 얇은 돌판을 세우고 그 안에 곡식을 보관하지만, 대부분의 고산족은 마을 중심에 별동의 곡창을 세웠다. 해안평지에 거주하는 아미족의 곡창은 낮은 고상식으로 상부재료는 대부분 대나무로 통풍은 좋은 반면 빗물이 들이치기 때문에 지붕에 초가를 첨가하였다.

류큐 일대의 곡창은 4개(혹은 6개, 9개)의 둥근기둥 위에 마룻바닥을 짜고 곡물 따위를 갈무리 하고, 藁葺의 지붕을 걸어두었다. 곡창 아랫부분은 그늘이 져서, 그곳에서 식사나 휴식을 취하고 어린이들이 노는 장소로도 사용하였다. 경제력을 갖춘 집에서는 곡창을 주택내 주동 앞에 설치하였고, 이후 건축술이 발달하면서 주옥의 후열인 ‘우라자’를 구성하여 곡물을 보관하였다.

<sup>16</sup> 下野敏見, 앞책, p.214: 오키나와·아마미에서 제1신은 火神이고, 제2신은 位牌를 모신다. 토가라에서는 제1신은 屋內神, 제2신은 火神, 제3신은 佛이다. 아마토(일본본토)에서는 제1신은 佛樣, 제2신은 屋內神, 제3신은 先祖棚, 제4신은 火神이다. 류큐에서 야마토로 복상할수록 火神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

<sup>17</sup> 日本民俗建築學會, 앞책, p.341: 인도네시아 스파섬의 거대한 지붕을 가진 민가에는 지붕에 곡물을 저장하고 정상부는 신이 머무는 곳으로 여겼다.



일본 九州·近畿·中國지방의 주택에서는 부부의 침실로 사용되는 후열의 ‘난도(納戸)’에 머무는 신령을 ‘난도가미(納戸神)’라 총칭하고, 매월 1일과 15일에 주부들이 제사를 지낸다. 난도가미의 정체는穀靈으로, “당초엔 오직 난가리에서만 위했는데, 이윽고 마당에 설치한 곡창(藏)에서도 봉사하게 되었고, 나아가 몸체의 난도로 옮겨 위하게끔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이나다마(稻靈)’의 제장이 옥외에서 옥내로 바뀌게 된 배경에는, “건축기술에 따르는 난도 공간의 성립에 의해, 그 난도가 부부침실이 되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産室이 되어, 영혼의 재생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18</sup>. 그러나 아직도 쓰시마(對馬島)에 돌지붕 창고군(石屋)은 화재에 대비해서 거주지역과 분리되어 세워져 있다.



【사진 2】동중국해권 곡창

제주도 민가에는 별동의 곡창은 없고 큰구들 뒤쪽에 ‘고팡’(庫房)을 설치해 주로 보리, 조 등 곡류나

콩, 유채 등을 담은 항아리들을 두었다. 제주도 전역에서는 고팡에 ‘안칠성(고팡할망)’을 모셨고, 쿠로시오가 흐르는 정의·표선 지역에서는 뒷마당에 ‘밧칠성(뒷할망)’도 함께 모셨다. 이 칠성신들은 여성들의 제물을 받아먹고 집안에 부를 안겨주는 뱀신<sup>19</sup>으로,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여 대부분의 농사짓는 여성들은 명절을 기해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가야의 家形土器 중에 고상식 창고가 보이고, 예전에 제주도 해안에 그물 따위의 어구를 저장하던 ‘덕’은 이와 유사한 형태이다.

### (3) 廁神과 돼지뒹간

廁神이라는 변소귀신은 칙신·측간신 등으로도 불리며, 대개 젊은 女神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농경민족의 정착성이나 농사와의 관련성에 의해 일찍부터 한·중·일 민간신앙의 한 형태로 굳어져 내려온 것이다. 그런데 중국 화남지역, 필리핀, 타이완, 류큐, 제주도 및 한반도 남부에는 돼지우리와 뒹간이 미분리된 독특한 돼지뒹간이 널리 분포한다<sup>20</sup>. 이것은 중국 漢나라의 가형토기에서 보듯 고상식 구조이고, 석재를 사용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더불어 측신에 대한 민간신앙과 그에 따른 행동양식도 유사하다.

제주도의 돛통시는 6~10여 평 안팎의 땅을 1m 깊이로 파서 검은 현무암으로 쌓고, 고상부에 변소를 두었다. ‘문전본풀이’에서는 조왕과 측신을 처첩관계로 설정하여 부엌과 변소가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또 돛통시에는 廁鬼(치귀)가 있어서 용변을 보는 중에 이 병에 걸리면 백약이 무효로 병이 낫지 않는다는 속신이 있어서 밤에 용변 보러 돛통시에 가는 것을 몹시 꺼렸다. 이 신에

<sup>18</sup> 남근우, 2005, 「일본의 ‘家神’ 신앙과 농경의례」, 『한국의 가정신앙』, 민속원: 옥외에서 행하는 벋가리 제사의 원의를 곡령 신앙으로 파악할 경우, 그 제장의 변천 문제는 씨 나락의 선별·보존·관리 등의 문제로 치환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호한 씨 나락의 선별과 그 안전한 보관은 예전의 농민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고, 신앙적 차원에서도 곡령이 가지고 있는 豐穰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sup>19</sup> 이건의 『濟州風土記』에는 ‘섬 사람들은 구렁이든 뱀이든 막론하고 그것을 보면 府君神靈이라 하여 반드시 쌀과 맑은 물을 뿌려 빌고 죽이는 일이 전혀 없다’라는 기록이 있다. 제주의 蛇神 숭배는 한반도에 없는 특이한 현상으로,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에서는 뱀을 숭배하는 지역이 많고 관련 설화도 많이 전승되었다. 그리고 타이완의 파이완족은 자칭 百步蛇의 후손이라고 하여, 전설에서 난생설화와 뱀숭배의 풍속을 살펴볼 수 있다.

<sup>20</sup> 장보웅, 앞책, pp.170~171, 김광언, 앞책, p.468

대한 의례는 변소에 기르는 돼지가 흥을 보았다든지, '변소동티'가 났다는 점괘가 내린 때 외에는 별로 하지 않는다.

동일본에서는 변소가 몸채의 일부에 자리하지만 서일본에서는 바깥변소를 건축하였다. 변소에는 '가와야가미(廁神)', '셋친가미(雪隠神)'를 모셨는데, 대부분은 구체적인 신체를 모시지 않으나, 간혹 변소 한구석에 신사에서 받은 부적이나 종으로 만든 작은 인형을 신체로 모신 곳도 있다. 대개는 특정한 祭日이 없고 선달 그믐날이나 정월 대보름에 시메나와나 간단한 공물을 바쳤다. 변소신은 깨끗한 걸 좋아하는 여신이거나 혹은 한쪽 손이나 눈이 없다는 不具 전승도 폭넓게 존재한다.



【사진 3】 동중국해권 돼지뒷간

류큐에서 돼지우리와 뒷간을 겸한 '후루'는 14세기말에 중국 푸젠성(福建省)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라고 한다. 부지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돌로 쌓아 구획을 나누고, 돼지집의 지붕은 띠로 덮은 草屋型과 石造아치형 그리고 기와를 올린 기와 지붕형 등 민가에 따라 다양하다. 류큐에서는 일찍부터 축신인 '후루신'을 집안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으로 믿어 왔다. 외출했다가 야밤중에 귀가했을 때는 먼저 후루에 들러 자고 있는 돼지를 깨워 '깁!'하는 소리를 확인하고서 방

안으로 들어와야 후루신이 뒤쫓아 오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타이완의 파이완족·루카이족 민가에서는 일실형의 주택내부에 돼지우리를 설치하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걸쳐 측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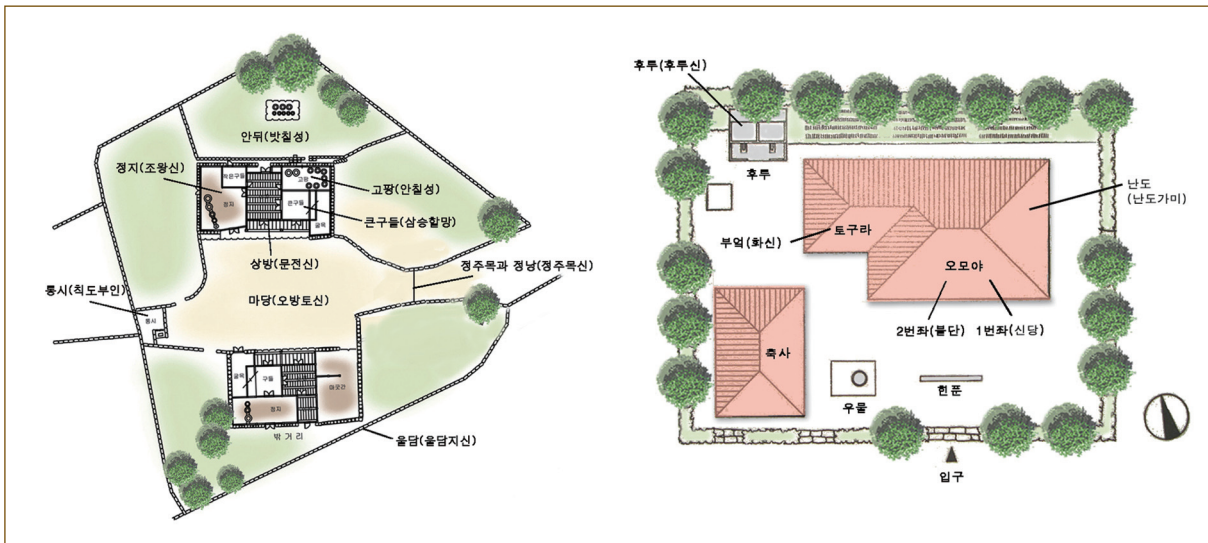
## 2. 聖域의 변용

### (1) 분동형의 일체화

동중국해 지역에는 몸채와 별동형 부역을 기본으로 하는 分棟型이 널리 분포하였다. 이것은 아열대성 기후로 겨울에도 각 건물간의 환기를 좋게 하고, 태풍시 대규모 민가보다 소규모 민가쪽이 유지관리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후 분동형은 생활양식의 변화, 건축기술의 발달, 가사제한 등으로 점차 일체형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류큐 민가는 분동형→열쇠형→우진각형으로 '우후야(母屋)'와 '토구라(炊事屋)'가 일체화 되어가고, 규슈 민가도 주옥인 '오모테'와 취사옥인 '나카에'가 점차 연결되면서 二자형에서 ㄷ자형·ㄱ자형으로 변모한다. 제주도 민가는 별동의 정지거리가 점차 없어지고 안거리에 정지를 구성하고, 가족구성과 경제력에 따라 안거리·밖거리·모커리가 ㄷ자형으로 배치된다<sup>21</sup>.

더불어 동중국해 지역에서 火神과 穀靈神의 제사와 제장을 통해서도 분동형이 일체화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火神은 별동형 부역에서 모셔지다가 몸채내 부역으로 옮겨가고, 이후 조리를 위한 흙바닥의 화덕에서 난방을 위한 고상의 화로가 분리되면서 화신도 분리되는데, 지역에 따라 고상의 화신을 더 상위로 섬기기도 한다<sup>22</sup>. 穀靈神도 마을 중심부의 곡창에 위치하다, 개인주택 마당의 곡창(혹은 낱가리)으로 옮겨가고, 이후 몸채의 내부에 좌정하였다. 이때 제주도의 '고팡', 규슈의 '난도', 류큐의 '우라자'는, 집의 후열이라는 주택내 위치와 곡식을 보관하는 기능까지 유사하다. 이에 반해 廁神이 좌정하는 돼지뒷





【 그림 9 】 제주도 · 류큐 민가와 家神

간은 관리 및 기능상의 이유로 별동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짙고, 특히 제주도와 류큐의 돼지뒷간은 고상식의 석조로 유사한 외관을 취하고 있다.

## (2) 이중적 聖域

한국 · 일본 · 중국 · 타이완을 포괄하는 동북아시아는 유교문화권으로 묶을 수 있지만, 동중국해권은 토속신앙이 비교적 순수하게 전승한 곳으로 한편으로 오세아니아 및 중국남부 소수민족의 신화화도 공통되는 점이 많다. 이후 불교 · 유교가 수용되면서 예로부터 있어온 조상숭배의 풍습은 타이완의 고산족을 제외하고는 불교화 · 유교화하여 동중국해권 민가의 聖域은 이중적 구조를 취한다.

제주도의 신앙체계는 고려이전에는 무속신앙이 자리잡았고, 고려 때에는 불교가 번져갔지만 기존의 무속신앙과 습합되었다. 이후 조선시대에 한반도로부터 유교가 수용되지만 민중 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갈등을 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교, 서원이 설립되었고, 유교식 祭禮法이 남성들에게 보급되

었다. 이후 제주의 마을에서는 남성중심의 유교식 ‘醺祭’와 여성중심의 무속적 ‘당굿’이 나란히 행해지고, 家祭에서도 차례나 기제사와 같이 가장 중심의 유교식 의례와 고사 · 안택 등과 같이 주부 중심의 집신(家神)제사로 유지되는 이중적 구조를 보인다.

류큐 민가에는 몸채인 오모야(母屋)뿐만 아니라 부속채인 곡물을 저장하는 구라(藏)나 바깥변소 등에도 다양한 가신(屋內神)을 모셨다. 그런데 17세기 중엽부터 서민주택의 表側에 접객공간인 데이와 자시키가 등장하면서 그곳에 神社의 신을 모시는 가미다나(神棚)와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불단(佛壇)이 옮겨가고 家長이 아침 · 저녁으로 공물을 바쳐 예배를 올린다. 이로 인해 裏側인 다이도코로 · 도마 · 난도 등 가족중심의 사적공간에는 기존의 정령적인 신령들인 난도가미, 에비스 등의 무속신이 자리하고 주부들이 제사를 드렸다.

류큐 민가에서는 화신, 후루신, 중주를 섬겼는데, 17세기 이후 1番座에 神堂, 2番座에 佛壇이 설치되었다. 신당에는 開祖者 이전의 신, 즉 명백하지 않은

21 윤일이, 2010.3, 「남방문화 전래에 따른 동중국해권 민가의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6권3호, p.108

22 김광언, 앞책, p.152: 옛 제주인들은 봉덕화로의 불을 할머니인 여신으로 간주한다. 제사에 쓸 적갈이나 생선, 묵 등은 반드시 봉덕화로서만 굽었는데, 이는 봉덕화로는 있는 상방은 聖域으로, 일상 음식물을 익혀 먹는 정주간은 汚域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먼 선조를 모시되 여기에는 위패가 없고 불단에는 명백히 알려진 개조자로부터 바로 전에 사망한 조상까지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 불단은 대종가뿐만 아니라 소종가에도 있지만 신당은 대종가에만 있다. 모제나 불단·신당 제사시에는 여자가 참석한다. 즉, 류큐 민가의 영역은 東·表-男·公, 西·裏-女·私라는 관계가 성립되었다.

동중국해권 민가의 聖域을 통해서, 첫째 화신(조왕), 조령신, 측신은 출생과 생산 등 타계와 연결되며, 곡식·씨앗의 보관과 음식을 조리하고 퇴비로 거름을 만드는 등 농경과 관련된다. 이들을 모시는 곳은 별동형 부엌, 곡창, 측간 등의 별동으로 존재했다가 점차 주택내로 흡수된다. 둘째, 곡창과 돼지뒷간은 고상식이어서 중국남부와 동남아 경로와, 별동형 부엌과 火神의 성격은 남양 경로와 관련이 있는 등 해양문화의 혼합성이 나타난다. 그러나 별동형 부엌·곡창·돼지뒷간에 석재의 사용은 동중국해 住文化圈만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셋째, 동중국해권 민가는 여성중심의 공간이 발달했으나, 점차 한·중·일 주류문화권의 영향으로 여성공간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여성신의 신격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제주도 민가에서 무속의례는 여성이 유교의례는 남성이 주관하고, 규슈 민가에서 家神 성격에 따라 공적공간인 오모테측과 사적공간인 우라측으로 구분되고 제사자들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다. 류큐 민가에서는 동쪽에 佛壇을 두고, 서쪽에 火神을 모시는 이중적 성역을 이룬다.

### 3. 수평적 공간구성의 변화

#### (1) 수평적 공간구성

동북아시아에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건축공간에 남존여비의 상하질서가 나타나고, 인도와 동남아시아

에서는 힌두나 이슬람의 영향으로 남녀영역이 명확히 분리된 파르다시스템(女性隔離)이 나타난다. 그에 비해 동중국해 지역에서는 수평적 세계관이 가족구성과 가계계승 등에 영향을 미쳐 남녀가 섞여서 나란히 자는 등, 건축공간에 위계적인 공간구성이나 복잡한 영역의 분리가 발견되지 않는 수평적 구성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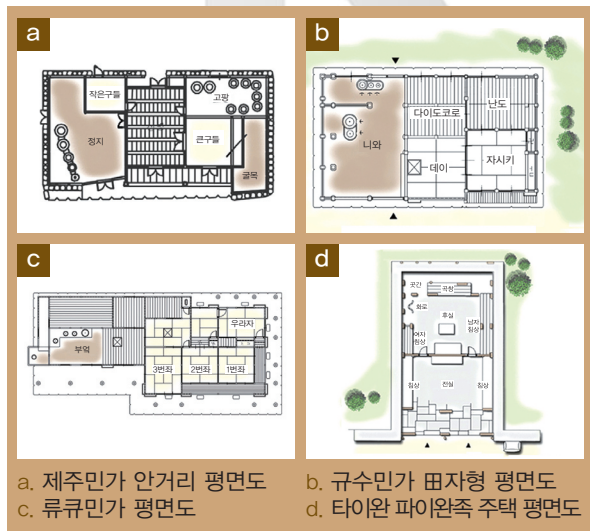
제주도 살림집은 안거리와 밖거리로 남녀별 분리가 아닌 세대별로 분리되었다. 결혼과 동시에 독립적인 채에 거주하고 그에 딸린 각각의 정지·고팡을 지님으로써 처음부터 별개의 경제권과 주부권을 획득하였다. 이처럼 생활공간의 독립과 경제적 독립은 대등한 인간관계를 가능케하는 토대가 되었다. 주택공간 내 남존여비나 내외사상 등이 강하지 않았고 강력한 권위나 권력이 집중되지 않았다. 제주민가의 큰구들에서는 부부·유아의 침실 또는 내객의 침실 그리고 祭室·産室·忌室 등으로 사용되었고, 작은구들에서는 미혼자녀가 생활하였다. 큰구들이 발달하지 않은 것을 여자의 외부활동이 잦은 것에 원인을 찾기도 한다. 중앙에 위치한 상방은 접객, 여름철의 취침, 식사 그리고 가족의 단락과 휴식, 祖先의 제사 등 구심점을 이루는 장소였다. 이는 온난한 기후로 상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권위나 형식보다 실질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수평적 인간관계에 근거한 가족구조 및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상방에서 좌석배치는 경제권을 쥐고 있는 주부가 식량을 보관한 고팡문의 열쇠를 가지고 고팡문을 등지고 앉고, 남편은 외부와 통하는 상방의 호령창 근처인 ‘생깃(성주)말’에 앉았다. 손님은 통상 상방에서 맞이하는데 정지쪽으로 앉았다<sup>23</sup>.

규슈지역에 분포하는 ‘히로마(廣間)형’ 평면에서는 실내 중심에 있는 나카노마가 가족침실·식사·단란·응대의 장소이고, 난도는 부부침실과 수납공간이고, 자시키는 행사 및 접객공간이었다. 특히 나카노

23 조성기, 2006, 『한국의 민가』, 한울아카데미, p.304

마는 제주도 민가의 상방과 위치와 기능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田자형’은 히로마형의 나카노마 공간이 다이도코로와 데이로 구분되어, 다이도코로에서 식사·단란·작업이 이루어졌고 데이에서는 행사·응대·교제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가족의 식사는 화로가 있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 흙바닥의 아궁이 근처에 여성이 앉고, 그 맞은편인 입구쪽으로 남성이 앉았다.

류큐 민가의 평면은 처음에는 중앙에 中柱를 가지는 1실 주거에서 점차 중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동자기둥(東)으로 용마루(棟木)를 지탱하는 구조로 발전하게 된다. 접객실인 1番座와 가족실인 2番座의 2실이 나열되고 후열에 수장공간인 우라자가 분할되며, 점차 식사장소인 3실이 나열되는 평면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뒷기둥(緣柱)의 외측에 차양기둥(庇柱)을 둘러서 실을 확장하여 사용하거나 차양간(土庇)으로 이용한다. 이처럼 류큐 민가의 평면은 중분할과 횡분할이 복합되는 형태를 이룬다<sup>24</sup>.



【그림 10】 동중국해권 민가의 평면도

타이완에서 란위도의 야미족은 주옥에서 전실은 자녀들이 후실은 부부가 사용하였고, 신희부부는 산실을 이용하였다. 화리엔의 야미족은 1실주거로 동쪽은 여성공간 서쪽은 남성공간이 사용하고 취침할 때에는 방 중앙에서 잔다. 파이완족의 주택에서 전실의 의자는 손님의 침대로도 사용하였고 후실에서는 아궁이가 가까운 침대가 여성용이었다.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기능에 따라 출입구 근처는 남성공간, 아궁이 근처는 여성공간으로 사용하는 공간분리가 일부 보인다.

## (2) 동중국해권 민가의 다변화

동중국해권 민가에서 남녀공간의 구분이 약하며, 상하의 수직적 개념보다는 오히려 평등의 수평적 개념이 강하다. 그래서 공간분화도 기능적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다. 가족의 식사·단란공간, 작업장·건조장·수장공간인 별동형 부엌은 여성공간이자 대체로 서쪽에 위치하는 공통점이 있다<sup>25</sup>. 점차 몸채내에 부엌이 구성되고 여러 실로 분화하는데, 제주도의 정지에서 단란과 식사공간인 상방과 찻방, 규슈의 나카에에서 식사공간인 다이도코로, 류큐의 토구라에서 식사공간인 3番座가 분리되는 등 상당히 유사한 평면구성과 분화과정을 가진다.

그러나 근세이후 대륙북방계에 원류를 두고 있는 가부장적 특성이 상류계층과 본토와 교류가 잦았던 성읍이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북방문화와 남방문화가 공존하는 이중적 체계를 이룬다. 더불어 제주도에는 온돌이 규슈와 류큐에는 다다미가 도입되는 등, 동중국해 지역의 민가는 점차 제주도는 한국화, 규슈는 일본화, 류큐는 일본화·중국화, 타이완은 중국화 등 다변화 되어간다. 이를 통해 동중국해 지역에는 남방문화의 특성들이 잔존하며, 그중

<sup>24</sup> 野村孝文, 1961, 『南西諸島の民家』, 相模書房, pp.46~49

<sup>25</sup> 『三國志』『魏志東夷傳』 弁辰條: 집에 부엌을 설치하는데 대부분 집의 서쪽에 시설된다.

에서 상대적으로 독립된 문화가 강해서 중앙화가 늦었던 제주도와 류큐의 민가에서는 그 원형을 많이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 결론

쿠로시오가 흐르고 계절풍이 부는 동중국해 지역에는 대륙의 북방문화뿐만 아니라 단속적이지만 바다를 통한 남방문화가 복합화되어 이곳 住文化圈만의 특색을 이루었다. 家神들이 좌정하는 聖域을 통해 제주도를 포함한 동중국해권 민가에서 나타나는 남방문화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1. 동중국해 지역에는 해양과 관련된 수평적 신화가 주류를 이루고,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반농반어·반농반채 등 이중적 생계수단을 지닌다. 가족구성은 전체적으로 모계·쌍계사회의 특성이 강한 연령계제제의 남방계 특성이 잔존하면서도, 외부적으로 대륙 북방계에 원류를 두고 있는 가부장권의 특성이 상류계층과 도시에 나타나는 이중체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주택구조는 종적위계·남녀구별의 수직적 공간구성 대신에 세대별·기능별에 따른 수평적 공간구성을 이룬다.

2. 동중국해 지역은 정령신앙·조상숭배를 기반으로 한 토속신앙으로 家神들은 여성·농경·불과 관련성이 깊다. 부엌에서는 화신(조왕), 곡창에서는 곡령신, 측간에서는 측신을 섬겼는데, 이들은 대부분 女神이고 司祭도 주부들이 담당하였다. 이후 한·중·일 본토에서 불교·유교가 들어오면서 기존 여성중심의 무속의례와 남성중심의 불교·유교의례가 공존하는 二重的 聖域을 이룬다.

3. 동중국해 지역에서 조왕, 조령신, 측신들을 모

시는 곳을 통해 별동형 부엌, 곡창, 돼지뿔간 등이 별도로 존재했다가 점차 주택내로 흡수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생활양식의 변화와 건축기술의 발달에 연유하였다. 또 곡창·돼지뿔간의 고상식은 중국남부 경로와 별동형 부엌과 火神의 성격은 남양 경로와 관련이 있는 등 해양문화의 혼합성이 나타난다. 그러나 별동형 부엌·곡창·돼지뿔간에 석재의 사용은 동중국해 주문화권만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4. 동중국해권 민가는 여성중심의 공간이 발달했으나, 한·중·일 주문화권의 영향으로 점차 여성공간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여성신의 신격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이원진, 1653, 『탐라지』, 김찬흠 외 역
- 이형상, 1702, 『탐라순력도』
- 이형상, 1704, 『남환박물』
- 국립제주박물관, 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 국립제주박물관, 2007, 『탐라와 유구왕국』
- 국립제주박물관, 2003, 『항해와 표류의 역사』
- 김광언, 1988,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 김미영, 2002, 『일본의 집과 마을의 민속학』, 민속원
- 남근우, 2005, 『일본의 '家神' 신앙과 농경의례』, 『한국의 가정신앙』, 민속원
- 윤일이, 2010.3, 『남방문화 전래에 따른 동중국해권 민가의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6권3호
- 장보웅, 1981,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재
- 정영철, 1991.6, 『제주도 전통민가의 형성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3호
- 조성기, 2006, 『한국의 민가』, 한올아카데미
- 현용준, 1986, 『제주도무속연구』, 집문당
- 小野重郎, 1982, 『九州の民家』, 慶友社
- 野村孝文, 1961, 『南西諸島の民家』, 相模書房
- 日本民俗建築學會, 2001, 『民俗建築大事典』, 柏書房
- 下野敏見, 1999, 『民俗學から原日本見る』, 吉川弘文館
- 藤島亥治郎, 2000, 『台灣原味建築』, 李易蓉 譯, 原民文化
- 陳雨嵐, 2004, 『台灣的原住民』, 遠足文化



## A Study on the Sanctuary of the Residence in East China Sea

Youn, Lily<sup>a</sup> · Kenji Onomichi<sup>b</sup>

<sup>a</sup>Architectural Research Divisi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sup>b</sup>Department of Architecture, Kyushu Kyoritsu University

**Received** : 4 February 2010 | **Revised** : 12 February 2010 | **Accepted** : 2 March 2010

### Abstract

The skirts of East China Sea can be considered as one similar culture within a similar environment sharing Kuroshio current and a seasonal wind. These areas share their own compounded dwelling culture which comes from northern continents and southern countries from prehistoric times. A social and cultural context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process of adopting other cultures and naturalization in commoner's houses. The influences of Korea, China and Japan transformed commoner's houses after modern times.

First, the myths of these areas usually concerned with the ocean and women are the main characters of the story. A sterile environment made a half-farming and half-fishing or a half-farming and half-collecting living. It also made a clear gender role on manual works. Although a matricentric and a collateral society influenced by southern culture is a little still remained in the family composition, they also had kept a patriarchal system influenced by northern continental culture in the upper class and the city. The structure of the living didn't have a hierarchy by distinction of gender but a horizontal spatial composition by generation and function. Second, these areas had local belief based on animism and ancestor worship, and deity of one's family had a close relation with woman, agriculture and fire. The diety in the kitchen, the granary and the toilet are mostly a female and the priests are a female, too. After Buddhism and Confucianism were introduced from Korea, China and Japan, male priests also performed a religious service.

**Key Words** : The East China Sea, Southern Culture, Traditional Houses, Jeju Island, Kyushu, Ryukyu, Taiwan, a Family God, Sanctuary